



꼬마 작곡가들의 광주 작품 발표회 “나의 작품번호 1번은 000이에요”

아이들은 기자에게 자신들이 만든 곡을 소개하고, 들려주고 싶어 안달이 났다. ‘외계인’을 소재로 곡을 만든 심재현(양재현 3년)군도, ‘개의 하루’를 작곡한 손민서(광천초 4년)군도, ‘동물의 왕자’에서 동물들이 똥 싸는 모습은 호른으로 표현했다며 웃는 김기웅(동림초 4년)군도 뒤질 새라 곡 소개하기 바쁘다.

광주시향 ‘꼬마 작곡가 광주’
초등 3~6학년·가족반 35명
글·그림·멜로디 표현 곡 만들어
23일 문예회관에서 발표회
광주시향 단원들이 연주
8월 중 2기 멤버 모집 예정

(첼로, 김근돈(타악), 박남미(호른)씨다. 이현민(38)씨는 “내 자신은 이론적으로 곡을 만드는 데 익숙해져 있는데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한 그림과 글, 흥얼거리는 멜로디가 음악이 되는 과정이 흥미로웠다”며 “아이들과 부대끼며 오히려 재가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아이들과 가족 참가팀이 만든 17개 작품은 ‘꼬마 작곡가 광주 작품 발표회-나의 작품번호 1번(My Opus. 1)’을 통해 관객들을 만난다. 23일 오후 3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이날 콘서트에서는 류현진 ‘소중한 자연’, 윤서미 ‘신나게 놀자’, 윤지현 ‘신비로운 자연’, 정연우 ‘일본 여행’, 손민서 ‘개의 하루’, 김지원 ‘신비한 무지개’, 이신영 ‘귀여운 강아지’ 등이 연주된다. 또 준민이네 가족의 ‘제주도의 추억’, 예은이네 가족의 ‘시원한 바람’, 해솔이네 가족의 ‘바다 일기’ 등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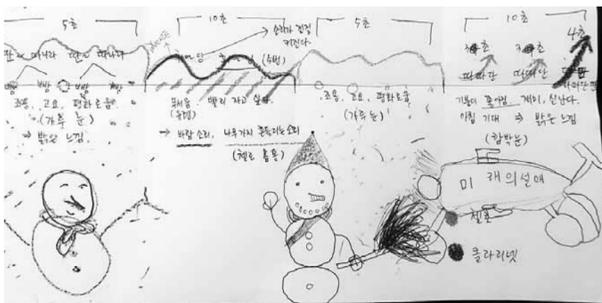
한편 광주시향은 8월 중으로 ‘꼬마작곡가 광주’ 2기 멤버를 모집한다. 수업은 무료로 진행되며 광주시향 홈페이지(www.gso.or.kr)를 참고하면 된다.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예회관과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진행하는 ‘꼬마 작곡가 광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 작곡가들이 지난 17일 시향 연습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꼬마작곡가’ 프로그램 참가 아이들이 작곡 과정에서 작성한 ‘타일라인’

사물과 풍경을 통해 내면 들여다보기

문정영 시인 ‘그만큼’ 발간

사물을 통해 내면을 성찰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의 작법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사물에 대응하는 정서는 시인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삶의 다양한 파고를 다독여온 시인이자 내면의 깊이와 부드러운 일련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문정영 시인의 시집 ‘그만큼’은 일상과 사물에 반응하는 시인의 정서가 정지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나 시인은 “아직도 임계점이 멀었다”며 “실익은 밥알뿐이다”라며 목소리를 낮춘다. 모두 4부로 구성된 시집에는 ‘산벚나무’, ‘새가 나비를 물고’, ‘아버지를 쓰다’, ‘책에서 물소리를 듣다’ 등 모두 51편의 시들이 수록돼 있다.

“비 그치고 돌맹이 들어내자/ 돌맹이 생김새만 한 마른자리가 생긴다./ 내가 서 있던 자리에 내 발 크기가 비어 있다./ 내가 크다고 생각했는데 내



키는 다 젖었고/ 걸어온 자리만큼 말라가고 있다...” 표제시 ‘그만큼’은 문 시인의 시적 지향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사물과 풍경을 매개로 내면을 들여다보는 태도는 동양적 관조와 무관치 않다. 유종인 시인은 해설에서 “문정영의 시들이 사물과 상황들을 접하는 감각적 응시와 발산은 날로 새로워지는 지점에 놓일 듯이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 볼 수 있다”고 평한다.

한편 장흥 출신 문 시인은 1997년 ‘월간문학’으로 등단했으며 현재 시정문지 계간 ‘시산맥’ 발행인을 맡고 있다.

“비 그치고 돌맹이 들어내자/ 돌맹이 생김새만 한 마른자리가 생긴다./ 내가 서 있던 자리에 내 발 크기가 비어 있다./ 내가 크다고 생각했는데 내

조선의 시인 야생화 소재 ‘어쩌면 쓰라린...’ 출간

구름송이풀, 꽃무릇, 가시연꽃, 금강초롱, 개망초, 천남성, 달개비, 솔새, 옥잠화, 영경귀... 우리의 산하에 피는 야생화들을 소재로 한 이색적인 시집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전주에서 농원을 운영하며 자연과 벗하는 삶을 사는 조선의 시인이 펴낸 ‘어쩌면 쓰라린 날은 꽃 피는 동안이다’(시산맥)는 꽃을 테마로 한 시집이다. 모두 42편이 작품이 수록된 시집은 저마다 시가 뿜어내는 독특한 향기로 그윽하다. 한 쪽에는 야생화 사진과 반대편에는 꽃에 대한 시가 담겨 있어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꽃무릇’에서 보듯 화자는 활발한 상상력으로 ‘꽃의 영혼’까지 들여다본다. 같은 탐색은 꽃에 한정돼 있지 않고 사람과 자연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마경덕 시인은 이를 가리켜 “누군가에게 꽃이 되려면 그 전율을 견뎌야 하듯 나무도 사람도 모두 인간됨으로 꽃을 낳는다”고 평한다.



다. 그 같은 탐색은 꽃에 한정돼 있지 않고 사람과 자연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마경덕 시인은 이를 가리켜 “누군가에게 꽃이 되려면 그 전율을 견뎌야 하듯 나무도 사람도 모두 인간됨으로 꽃을 낳는다”고 평한다.

한편 조 시인은 군산 출신으로 문인 신문신춘문예와 기독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열린 시’, ‘시맥’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집 ‘당신, 반칙이 야를 패했다’

를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시민참여프로그램 ‘나도! 아티스트’ 참여자 모집

25개팀 20일까지

광주비엔날레재단이 2016광주비엔날레 시민참여프로그램 ‘나도! 아티스트: Healing Heart(힐링하트)’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소외계층, 이주거정, 학교 밖 청소년 등이 현대미술을 제작하고 체험하면서 감성을 자극하고 치유하는 예술작업이다.

재단은 매 행사마다 ‘나도! 아티스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GKL

(Grand Korea Leisure)사회공헌재단 후원을 받아 진행한다. 프로그램 계획은 진시영 미디어 아티스트가 맡으며 전문심사위원단 심사를 통해 25개팀(5개팀 퍼포먼스)을 선정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장르는 평면, 입체, 미디어, 퍼포먼스 등이다. 선정된 25개 팀은 워크숍, 전문가 멘토링 등을 거쳐 한달간 제작·설치 작업을 한 뒤 8월30일부터 11월6일까지 광주시내 곳곳에서 전시 결과물을 공개할 예정이다. 문의 062-608-423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구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충청남도 장항읍 그리고 화순도 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평균작업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참숯구이 민물장어와 숙지환 삼계탕을 개시합니다.
- 솔향기정식,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숙지환삼계탕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참숯가마 찜질방 / 족욕탕 / 참숯구이 민물장어 & 돼지갈비 전문점 / 노래방 & 동전노래방